

안산, 이젠 우리 마을!

라온아띠 6기 필리핀팀
김가흔, 문진희, 양승진, 이민선, 정동수

마을? 안산!

마을지도: 우리의 콘텐츠

우리마을
꾸리기!
: 마을반상회

1주차. 특별한 마을



무빙스쿨!

안산에 오기까지..

2주차. 특별하지 않은 마을



1주차. 특별한 마을

- * 석수골 작은 도서관
 - 아주 잘 아는 우리 마을
 - 꿈꾸는 아이들
 - 작은 도서관

* 우리가 만난 석수골 주민들

특별한 마을

“아주 잘 아는 우리 마을” 데이캠프



* 데이캠프 시작 및 자기소개

* 우리마을 보물찾기



* 노래 배우기

* 모듬 활동(눈높이 맞추기)



특별한 마을



“꿈꾸는 아이들”

- ✧ 고잔초 아이들과 함께!
‘릴레이 책 읽기’
- 친구백과사전
- 우리가족 파이팅!
- 줄에 켜 내 생각
- 내 이야기 책



♣ 우리 마을 꿈나무 ♣

순수, 그리고 아이들의 꿈

↓
풍성해진 나무

특별한 마을

석수골 작은 도서관



아이들과 책 읽기 - 책 읽기 통한 교감

특별한 마을

우리가 만난 석수골 주민들



석수골 사람들의 이야기

- * 주차공간의 부족
- * 정책 시행 후 관리 미흡
- ** 새로이 생겨난 삶의 여유
- ** 우리 마을 자랑거리!
 - 마을정원, 마을공원, 작은 도서관

석수골 이야기를 통해 느낀 라온아씨의 생각

- * 변화를 꿈꾸는 석수골
- * 손님 의식 가지고 마을주민 되기의 필요성

특별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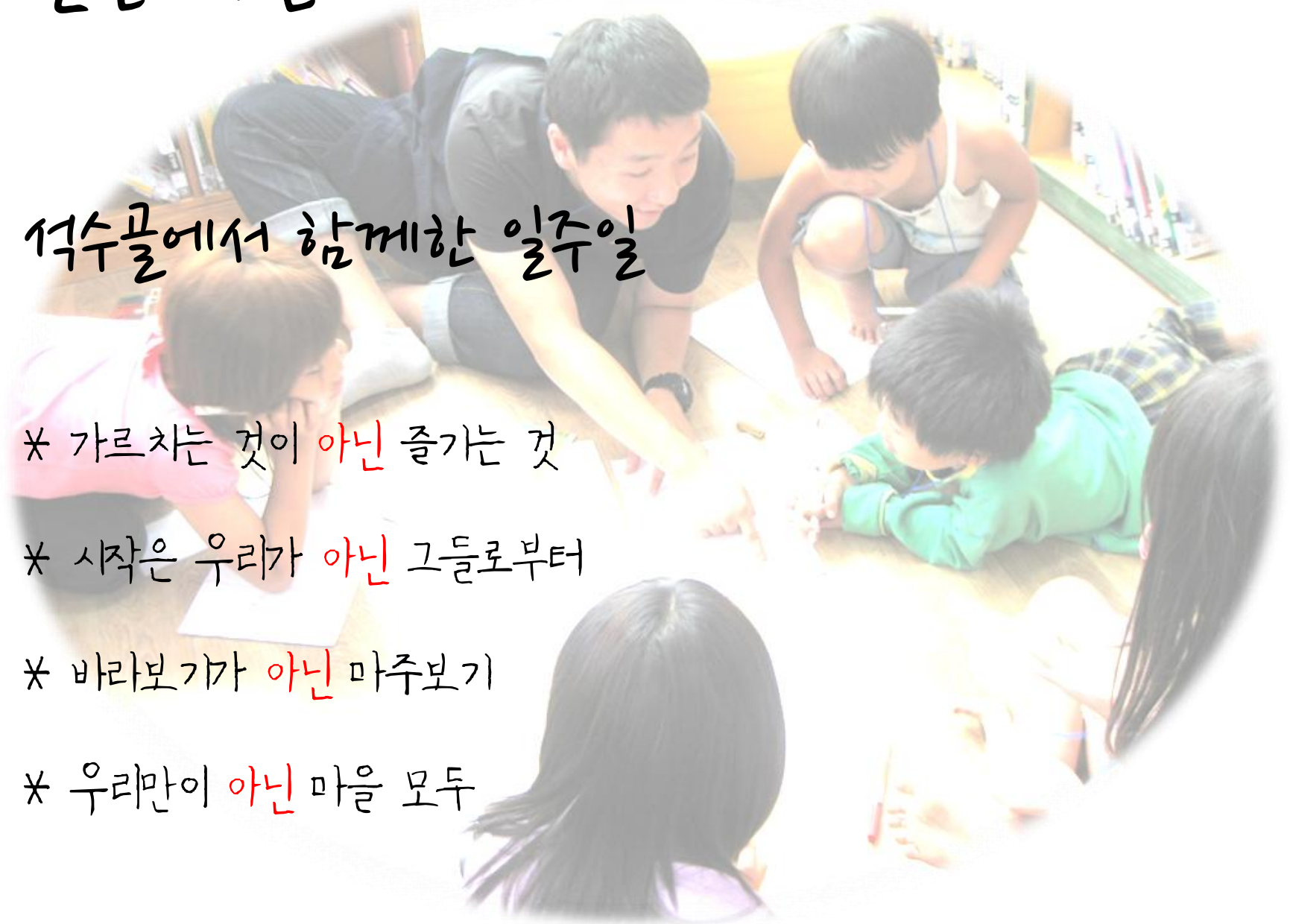
석수골에서 함께한 일주일

* 가르치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

* 시작은 우리가 아닌 그들로부터

* 바라보기가 아닌 마주보기

* 우리만이 아닌 마을 모두



2주차. 특별하지 않은 마을

* 안산 속의 다문화사회,
그들만의 다문화? 우리들의 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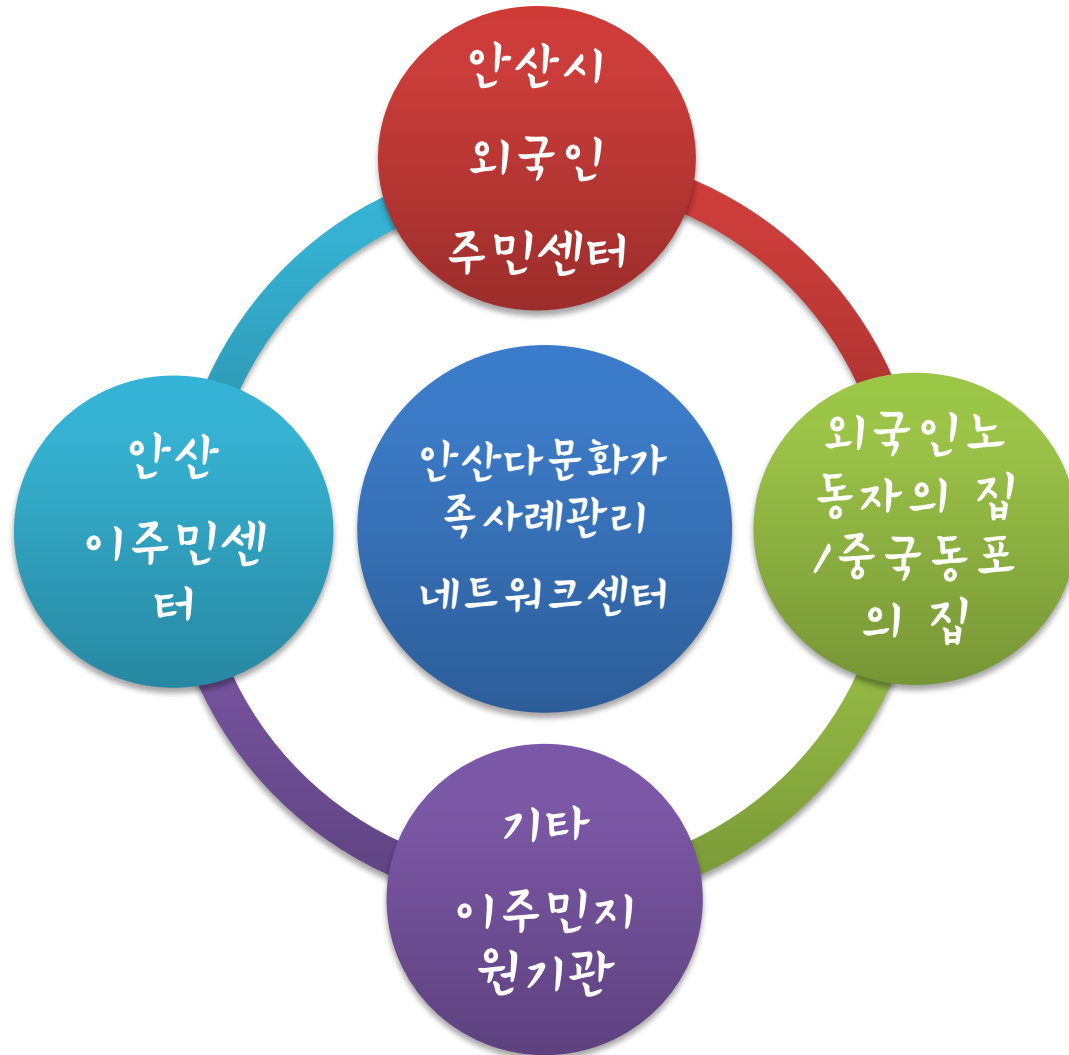
- 유성환목사님의 만남, 안산이주민센터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 안산다문화가족사려관리네트워크센터
 -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특별하지 않은 마을

1,350,000

특별하지 않은 마을

- 다문화기관 네트워크



특별하지 않은 마을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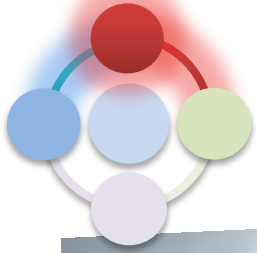
동정주의

민족적 배타주의

다문화주의

무관심

특별하지 않은 마을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 외국인이주민을 관리-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봄.
- 다문화작은도서관, 담당통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하지 않은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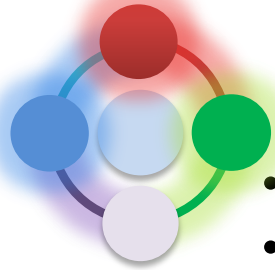


인산이주민센터

- ‘소수자 주체화, 다수자 변화를 통한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함.
- 이주민 생활 전반적으로 자원, 상담이 주요활동



특별하지 않은 마을



중국동포의 집/외국인노동자의 집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관은 많으나,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입체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주요 활동
- 외국인 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바라봄.



‘소수자 보호, 다수자 변화’



특별하지 않은 마을



안산다문화가족사례관리네트워크센터



- 3년 프로젝트성 사업

- 일부 이주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중복되는 서비스를 탈피, 경쟁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가기 위해 설립

- 사례관리 :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찾아서 '연결' 네트워킹

- 공동의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의 특성-입장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

특별하지 않은 마을

다문화(多文化)란?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

특별하지 않고 어느 사회에나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외국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수자라는 이유로 동정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외국이주민을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모습.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특별하지 않은 마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사는 것 자체가 다문화이다.

라온아미도 다문화야다.

마을지도: 우리의 콘텐츠

우리마을
꾸리기!
: 마을반상회

1주차. 특별한 마을



무빙스쿨!

안산에 오기까지..

2주차. 특별하지 않은 마을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약 2주 전,

안산으로 이주해 온 우리 다섯 명은
우리만의 다문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가 잘 하는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마을반상회: 우리의 역할

이장(잠재적 면장) 동수



노인회장(나의 연륜을 따를 자 누구냐

그렇지만 회춘할 수 있을까) 민선



부녀회장(마을의 가십은 내가 책임진다) 진희



청년회장(청년들이여 이대로 팬찮은가) 승진



골목대장(내 사회적 지위는 골목에..) 가흔



새로운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 우리, 더 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제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공고문

- 이번 주 반상회에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함께 녹색소비에 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 녹색 소비란?

소비할 때 따지는 품질, 안전, 가격(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하는 소비

나와 우리 주변 모두를 생각하는 개념소비,

다른 마을에서도 그 마을만의 녹색소비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EX. 동수골(필리핀 팀) 주민들의 녹색소비 원칙

하나. 여행가방과 장바구니는 최대한 가볍게! (과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장보기 전(짐꾸리기 전)에 미리 목록을 적어보아요.

- 여행 가방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장바구니는 먹을 만큼만!

둘. 전자기기제품을 적게 사용해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 노트북과 다카는 2개씩만!

셋.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아요.

- 종이컵 대신 물컵을, 비닐(종이)봉지 대신 장바구니와 가방을 사용해요.

넷. 물을 아껴써요.

-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사용해요.

Q. 지난 2주는 어떤 의미였나요?



2주가 2시간처럼 금방
지나가 버렸지만 마치 2년을
있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많
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던
시간이었어.



2주 내내 비가 온 뒤
오늘처럼 땡땡한
애가 뜬 것 처럼
임들고 고단했던
시간 후에 조금은
단단해졌던 기간



24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일주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아들에게도
자연스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 가끔 졸리고,
파곤할지라도
무엇보다
즐거웠어!!



“팀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가 아닌 “내가
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되었어.

Q.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팀이란?



연대 책임의식을 가진
잠재적 가족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아직 5일째라... 찢찢찢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다문와 가족”

이번 원수들



함께 가요~ ♥



한 여름 뜨겁게 울다간 매미처럼,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화이팅!



빨리 보다는 멀리,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밥먹으면서 생각할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Salammat po!